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시 만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돌을 소재로 한  
도자 테이블웨어 연구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홍승연

돌을 소재로 한  
도자 테이블웨어 연구

김시만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홍승연

# 인 준 서

홍승연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몇 년 전 일본에서 매년 실시하는 “도쿄 테이블웨어(Tableware)展”을 참관한 적이 있었다. 다양한 식기를 중심으로 식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연출을 구성하는 요소인 식기, 컵, 글라스, 린넨류, 센터피스(Centerpiece), 커틀러리(Cutlery) 등의 발전은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그 앞에서 펼쳐지는 음식을 곁들인 정답이 있는 공간은 현대인이 갈망하는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실용적 용도와 심미적 효과를 감안한 새로운 테이블 웨어에 대한 의견을 작품으로 개진하고자 한다.

일본을 다녀온 후 서울 교외의 계곡에 나간 적이 있다. 그 곳에는 산자락 흙에 묻혀 등판만 내밀고 있는 넓적한 바위, 계곡을 따라 구르다 부서져 모가 난 돌, 서로 부딪혀서 둥글어지고 작아진 돌멩이, 계곡 물에 잠기고 씻겨져 반질해진 조약돌이 지천에 깔려 있었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모양처럼 술한 사연을 담고 있을 것 같은 자연 상태의 다채로운 돌의 형태에서 작품의 소재를 찾아 이를 작가적 시각으로 조형화하여 감성적 스토리가 담긴 테이블 웨어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돌은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의 불완전하고 나약한 한계성에 반해 모진 풍파에도 불구하고 영겁의 세월을 묵묵히 견디어낸 초월적 힘을 지닌 상징적 존재이다. 돌의 불변성(不變性), 부동성(浮動性), 견고성(堅固性), 항구성(恒久性)은 인간의 인격 수양과 자아 성찰의 교훈적 의미와 나아가 인간이 지향해야 할 덕목이라는 점에 그 의미를 두고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작품 제작은, 풍부한 조형 예술적 요소를 지닌 돌의 형태를 인간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본인의 감성으로 해석하여 조형화 하였다. 백자 작업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자연석을 이용한 석고제형을 통해 복제를 하고 다양한 조형 형태를 연출하기 위해 캐스팅을 한 후 변형을 시켜 자유로운 성형을 이룰 수 있었다. 복수 제작이 용이한 슬립캐스팅(Slip Casting)의 배출성형(Drain Casting), 고형주입성형(Solid Casting) 방식을 주로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주전자의 경우 다양한 디자인을 형성하기 위해 부속품(뚜껑, 물대, 손잡이)은 몰레로 성형을 하여 제작하였다.

우리 주변에서 친근하게 존재하는 자연물인 돌의 형태를 관찰함으로써 조형적 동기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물(物)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통해 사물의 고유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능적 측면만이 중시 되어 왔던 종래의 사고에서 벗어나 감성적 스토리가 담긴 테이블 웨어로,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조합하여 새로운 구성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용적인 기능과 장식적 기능을 갖춘 테이블 웨어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내용과 방법 .....	2
II. 본론 .....	4
1. 돌의 상징성 고찰 .....	4
2. 돌의 조형성 연구 .....	8
3. 현대인의 식탁문화 의식과 호감도 .....	12
4. 연구작품 .....	13
1) 제작의도 .....	13
2) 연구작품 및 제작과정 .....	14
III. 결론 .....	35

## 참고문헌

## ABSTRACT

## 시작품 목차

【시작품 1】 생명-1 .....	15
【시작품 2】 생명-2 .....	16
【시작품 3】 생명-3 .....	17
【시작품 4】 생명-4 .....	18
【시작품 5】 사색 .....	21
【시작품 6】 사월의 외출 .....	22
【시작품 7】 제비 .....	23
【시작품 8】 담소-1 .....	25
【시작품 9】 담소-2 .....	28
【시작품 10】 담소-3 .....	29
【시작품 11】 담소-4 .....	30
【시작품연출1】 만추(晩秋) .....	31
【시작품연출2】 초대(招待) .....	32
【시작품연출3】 5월의 장미 .....	33
【시작품연출4】 담소(談笑) .....	34

# I. 서 론

## 1. 연구목적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의 돌의 형태는 제각각이다. 그러나 제작자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 쓸모없는 돌이 될 수도 있고, 소중한 옥이 될 수도 있다.

지형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단순한 암석인 돌은 동양의 자연주의적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과 사고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분리 될수 없는 중요한 지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만물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지각 방식에 의해 그 의미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독특한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작품의 소재로서의 돌은 단순한 바위와 돌멩이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사고방식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서, 작품의 소재에서 느끼게 되는 상징과 은유적 표현을 통하여 형태적 이미지 이외의 내재 된 자신만의 상징적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만나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억에 내재 되어 있는 조형언어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돌은 생성 시기와 장소, 환경에 따라 그 형태와 구성이 여러 유형으로 분리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자가 연구에 이용한 돌들은 대부분 우리 주변의 계곡이나 강가에서 오랫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서로 부딪쳐 연마된, 세월의 흔적이 묻은 돌이다. 지금은 작은 덩어리에 불과한 크기로 존재하고 있지만 태초에는 모든 삶의 거대한 축을 이루었던 가치는 생태 환경의 근원적 존재로 만물의 집적성(集積性)을 대표하는 사유적(思惟的) 사물로 존재하고 있다.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무수한 상징성과 철학적 의미와 정서를 집적하고 있는

돌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사상을 되새기고 이어받아야 할 교훈적 의미를 가진 물(物)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돌이 가지고 있는 사유가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게 된 중요한 동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돌의 상징성에 대해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돌의 조형 예술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돌의 이미지를 정신적 배경과 감정이 내재된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도자기로 표현하여, 대중의 내면세계와 소통하여 자아의식(自我意識)에 대한 사유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에 의한 고찰을 통해 전개하려고 한다. 인간의 내적 세계의 염원과 인류사적 가치를 가진 돌의 생성과 상징성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의 문화에 어떻게 해석 되어 표현되었는지 알아보고 본인의 주관적 해석으로 작품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론에서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돌의 형태미에 대해 우리의 문화 속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를 문헌과 전통 회화 작품을 통해 알아보고 역사와 예술에 나타난 철학적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둘 째, 돌의 형태와 이미지를 디자인에 도입한 사례의 제품들을 알아보고 그 실용성과 미적 가치에 대해 논하였다.

셋 째, 현대인들의 식탁문화의식과 호감도에 대한 연구로 식기의 발전 과정과 그 배경적 요소에 대해 서술하고 오늘날 사는 현대인들의 요구와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작품의 제작방법으로는, 자연환경의 변화에 의해 각양각색으로 다듬어진 돌의 형상에서 본인의 조형의지를 찾게 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래의 돌의 형태를 석고 제형을 통해 복제하고 변형을 한 후 본인의 심상을 담아 조형화 하였다.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돌의 형태와 결의 상태를 인간의 '삶'의 모습에 반추(反芻)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돌 표면의 질감과 형태미를 유지하고 다양한 돌의 조형형태를 연출하기 위해 한 가지 모양의 기물을 두드리거나 상하좌우의 위치를 다르게 하였고, 물레 성형으로 새로운 모양의 장식물을 부착하여 하나의 원형으로 다양한 형태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부드러운 표면 질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백자 위주로 작업을 하였고 작품의 장식성을 고려하여 금채장식을 하기도 하였다.

## II. 본 론

### 1. 돌의 상징성 고찰

조선시대 회화(繪畵)에 나타난 돌의 상징적 의미는 불변성(不變性), 부동성(浮動性), 견고성(堅固性), 항구성(恒久性) 이외에 철학적(哲學的)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기질(無機質)의 물질에 불과한 돌이 원형적 특성에서 벗어난 민족적 상징체계로 분석한 돌은 기자치성(奇字致誠) 및 정령숭배사상(精靈崇拜思想)이 깃들어 있으므로 주술로 결부(結付)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통문헌에 나타난 돌의 가치와 의미는 문인화와 민화를 통해서 시각화되어 발전되었는데,<sup>1)</sup> 돌은 오랜 세월을 비바람에도 변하지 않는 의연한 자태로 인해 ‘절개(節概)와 지조(志操)’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예로부터 많은 스님들이 ‘선석(禪石)’이라 하여 돌을 애완하였으며 【도판 1】을 통해 선비들이 사군자와 함께 돌을 즐겨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sup> 특히, 【도판 2】는 민화에서의 돌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시대와 계급을 초월한 인간의 염원은 돌의 불멸의 상징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판 3】은 산수화나 정원의 괴석을 인위적으로 조망점을 정해 놓고 보여 지는 경관을 통해 심리적인 공간 확장과 사유를 반복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의 자유를 실현하는 ‘와유(臥遊)’ 정신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을 대상으로 그 재현을 실현하고자 했던 유가, 도가적 관념을 지녔던 두 예술 간의 상호 관련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하겠다.<sup>3)</sup>

1) 박현희, [조선시대 괴석도에 나타난 ‘돌’의 상징성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조형교육학회지 제58집, 2016, p.69

2) 장준근, 『한국의 수석미』, (석오출판사, 1979)

3) 전여옥, [조선시대 괴석의 특성과 산수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국전통조형학회지 Vol.22 No.2, 2004, p.7



석죽(石竹), 강세황(18C 조선), 지본담채,  
30.0 × 44.6cm



국화(石菊圖), 허련(19c 조선), 종이에 수묵,  
22.5 × 32.0cm



매화(墨梅圖), 허련(19c 조선), 종이에 수묵,  
21.8 × 33.5cm

【도판 1】



괴석난도, 정학교(19c조선),  
지본담채, 129.1 × 29.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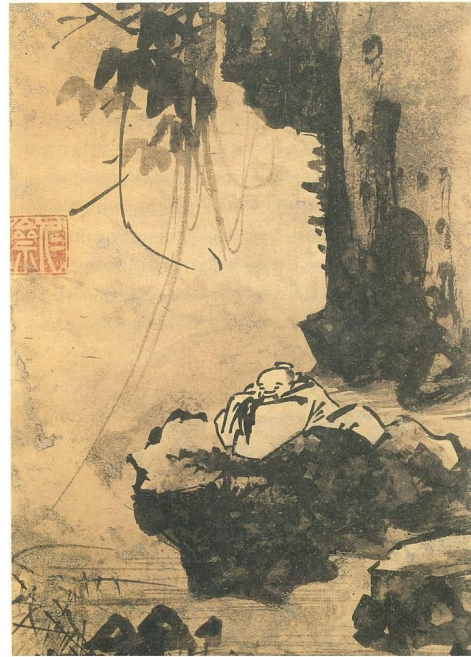


【도판 2】 8첩 병풍, 19세기, 견본채색, 각 폭 54.5 x 231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www.gogung.go.kr](http://www.gogung.go.kr)



【도판 3】 후원의 괴석, 작자미상, 창덕궁 낙성재

우리가 돌과 밀접한 환경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 돌의 생성배경에는 시기와 환경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리될 수는 있으나, 연구자가 이용한 돌의 대부분은 계곡이나 강가에서 오랫동안 서로 부딪쳐서 연마된 돌이다. 선택된 돌들은 그 흔적 정도에 따라 여러 사유를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형의 잔상을 통해 본인의 조형 사고에 감정을 지배시킬 수 있었다.



【도판1】 고사관수도, 강희안(15C,조선),  
종이에 수묵, 23.4 × 15.7cm,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본 연구자의 돌에 대한 심상은 조선시대 문인 화가인 강희안(1419~1464)의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에 집약되어 있다고 하겠다. 고결한 선비가 물을 바라보는 유유자적한 모습을 담고 있는 평화롭고 사색적인 그림에서 화면의 묵직한 너럭바위가 주는 분위기로 인해 바위에 편안히 엮드린 노인도 듄직한 성품을 지닌 고결한 선비일 듯 여겨진다. 강희안이 집필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에서인 양화소록(養花小錄)의 4권 [진산세고]의 ‘괴석’편에는 돌의 중

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강희안의 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알 수 있고, 원에서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상은 그의 철학서에 가깝다는 평가에 따라서 화면에 나타나는 선비의 평화로운 표정도 돌의 정기(精氣) 즉, 생명력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자의 오랜 동경의 대상이었던, 변하지 않으며 침묵하는 존재의 발견으로 인해 그림을 보며 마음의 안정과 더불어 평화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대상인 ‘돌’에 대해 재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작업의 동기가 되었다.

## 2. 돌의 조형성 고찰

우리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돌의 조형성 연구를 위하여 돌의 둥근 형태, 비정형적인 형태, 표면의 질감을 조형의 요소로 규정하고 연구에 임하였다.

돌의 둥근 형태에서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인해 생명력 있는 유연성으로 넉넉한 포용력과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돌의 둥근 형태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돌의 비정형적인 형태는, 모난 곳이 없어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 안정적인 형태이다. 그것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의 순리를 통해 얻어진 형태이며,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는 형태이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무의식 속에 내재된 순수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이다.

돌의 표면의 질감은, 돌의 견고성에도 불구하고 거침과 부드러움이라는 극명한 대조적 언어로 드러난다. 그것은 자연환경과 세월의 흐름에 따른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서 그 내면의 본질을 형상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사고는, 그 형태에서 무한한 긍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개념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간의 형태, 포용과 배려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자연환경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둥근 조약돌이 되어가는 돌의 여정(旅程)을 보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유(思惟)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본 연구자의 작품에 담고자 작업에 임하였다.

- 조약돌의 이미지를 이용한 사례

자연물 중의 하나인 조약돌의 절제된 형태와 자연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는 여유와 휴식을 갈망하는 현대인의 자연으로 향하는 심리를 대변하는 매개체로서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조약돌은 한 손안에 들어와 쥐어지는 만만한 크기와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유년 시절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친근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조약돌이라는 물상(物象)에 대한 몰입이라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조약돌의 형태와 이미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도판1】은 삼성전자의 mp3제품으로 사람의 손에 잡히는 적당한 크기와 감촉을 가진 조약돌의 형태와 이미지를 차용하여 음악을 들을 때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도판2】는 조약돌 모양의 벽걸이 화병으로 복잡한 도시를 떠나 휴식을 찾아 산과 들로 나가 만개한 꽃의 향기를 즐기는 여유로움을 실내에서 느낄 수 있다.



【도판 1】  
mp3 yepp-S2 (YP-S2) 삼성, 2008



【도판 2】  
Porcelain Pebble Vases, Paula  
Valentim of Otchipotchi

【도판3】 은 조약돌 모양의 도시락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든 도시락을 펼치면 소풍을 가서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도판4】 는 조약돌 모양의 양념통으로 그 형태가 오브제의 느낌을 주며 손으로 잡았을 때 동글동글한 조약돌을 쥐는 것 같은 서정적 느낌으로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위의 작품을 통해 본 조약돌의 형태와 이미지는 현대인에게 자연의 느낌을 선사하여 활력 있는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도판 3】  
조약돌 모양 미니 도시락, 강희정



【도판 4】  
조약돌 모양 양념통, Wood Hsieh for Toast Living

### 3. 현대인의 식탁문화의식과 호감도

인간은 식생활을 통하여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한편 심리적 만족감과 안정을 얻음으로 일상생활을 풍성하게 하였으며, 식기를 즐길 수 있는 여유와 감각은 사회의 안정과 비례하여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sup>4)</sup>

현대인이 요구하는 식탁 문화는 달라진 식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테이블 웨어로 식탁 위에서의 기능적 도구로서 고정된 제품만이 아닌, 생활공간에서 심미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테이블 웨어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여 감성과 품격이 있는 주거공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테이블 웨어’라는 특수성은 식기 고유의 기능을 고려하여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제작하여 용도의 기능성을 추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의 취향과 개성이 표현될 수 있는 창조적 식탁을 연출할 수 있다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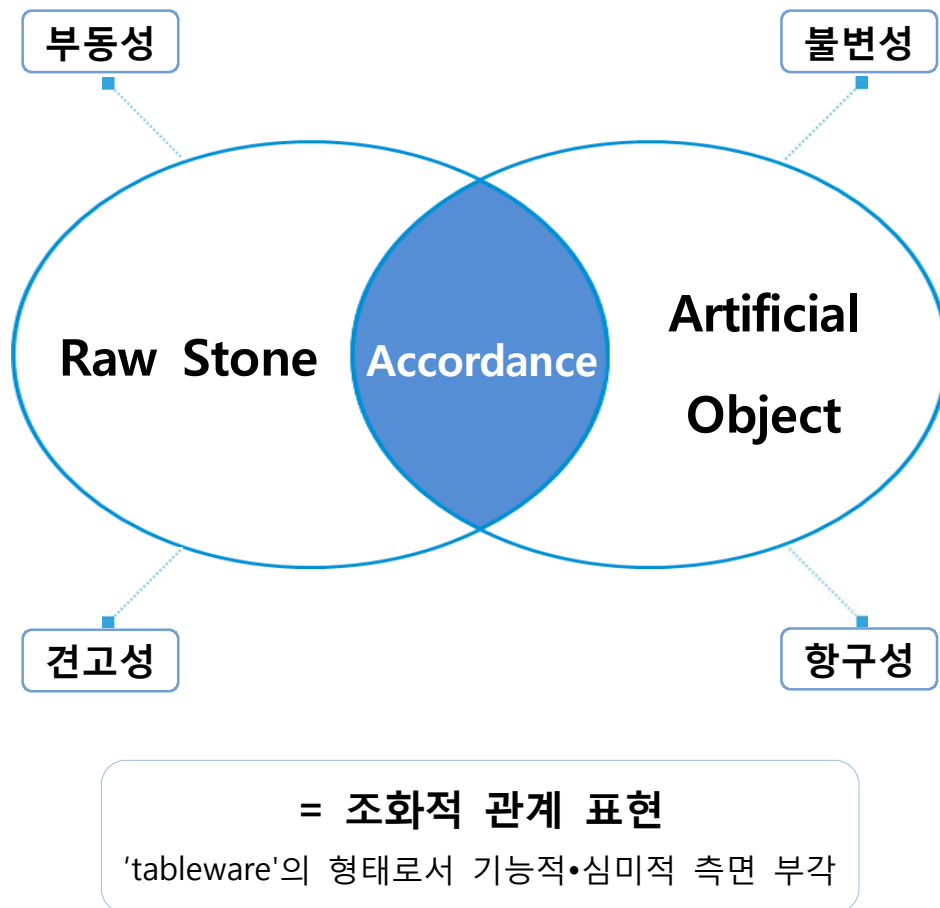
---

4) 정유경, 홍중숙 [ 한국, 중국, 일본 식기의 변천과정에서 본 식문화의 문화사적 고찰],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외식경영전공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3(3), 2008, p.30

#### 4. 연구작품

##### 1) 제작의도

본 연구자의 작업은 돌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사유를 제공하기 위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작품에 반영하였다.



## 2) 연구작품 및 제작과정

### ① 생명 1, 2, 3, 4

인류가 자연물인 돌과 물에 공통적으로 투사한 생명력(生命力)이라는 상징어를 인간이 꿈꾸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의 성취’라는 긍정적 언어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인간과 가장 친근한 자연물이고 상징적 존재인 돌과 물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주전자와 물 잔을 설정하여 인간의 영원한 염원인 꿈과 희망의 성취를 ‘생명 탄생’의 의미로 재해석하였다. 만물에 생명력을 주어 생명을 탄생시키는 돌과 물의 기운을 얻어 모두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작품을 제작하였다.

제작방법으로는 주전자의 몸체는 다양한 자연석으로 석고 원형을 만든 다음 틀을 만들어 캐스팅 기법으로 완성하였고, 물대와 손잡이, 주전자의 뚜껑은 다양한 형태를 이루기 위해 몰레 성형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몸통과 손잡이, 물대의 흠의 성질이 달라 부착 시 건조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물 잔의 제작방법은 물 잔의 형태에 쓰일 부분을 흠에 심어 고정하고 물 잔의 상단 부위로 사용될 부분을 필름으로 감싸고 고무줄로 압박한 다음 석고를 부어 원통형을 만든 다음 다듬어 물 잔의 형태를 완성한 다음 틀을 만들어 슬립캐스팅 방식으로 완성하였다.

【시작품 1】 생명-1



백자, 환원소성, 슬립캐스팅, 물레성형 540 x 400 (cm)

【시작품 2】 생명-2



백자, 환원소성, 슬립캐스팅, 물레성형 540 x 400 (cm)

【시작품 3】 생명-3



백자, 환원소성, 슬립캐스팅, 물레성형 130 x 160 (cm)

【시작품 4】 생명-4



색슬립, 슬립캐스팅, 환원소성 70 x 140 (cm)

## ② 사색, 사월의 외출, 제비

작품 1과 2의 소재로 사용된 돌들은 강원도 홍천강 상류에서 수집한 자연 상태의 돌이다. 강(江)의 주변을 돌며 소용(所用)이 있는 돌을 고르는 시간은 설렘의 시간이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다. 작가의 심상을 표현하기 위한 돌을 고르는 행위는 하이데거의 ‘사물의 부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부름 속에서 함께 호명된 도래의 장소는 부재 속에 간직된 현존함이다. 그런 도래 속으로의 부름은 오도록 명함이다. 명함은 초대함이다. 명함은 사물들을 초대해서 사물들이 사물로서 인간들에게 다가간다. 즉, 부름은 현존하게 함이다. 사물을 부르는 언어는 단지 어떤 사물을 지시하고 그것의 사전적 의미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머물게 하는 사물, 바로 그것을 불러오는 것이다. 인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야 현상하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 되며 인간이 깃들여 사는 존재로 현상하는 것이다.”<sup>5)</sup>

본 연구자가 ‘부름’에 의미를 두고 돌을 고르기 위해 긴 시간을 고민하는 이유는, 돌이라는 사물이 내포하고 있는 깊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침묵하는 존재와의 소통이며, 나아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드러내어 내재된 자아의식(自我意識)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꽃병에 무심히 꽃힌 한 떨기 꽃... 그것은 돌이 키워낸 생명체이다. 필연적 혹은 우연적으로 만난 한 톨 씨앗과의 인연(因緣)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고 성장시켰을 대지의 모태인 돌의 ‘관용’의 마음이다.

꽃을 피우기 위해 생명력(生命力)이 필요했고 그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수한 집적(集積)이 필요했다. 생성과 소멸의 변화가 새로운 인연의 집적으로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자연의 순환성(循環性)을 인간의 현실에 반추(反芻)하여, 다채로운 사연으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

5) 김동규, 『하이데거의 예술론』 예술과 철학사이, (서울 그린비 2009), p.152

야생의 생명력을 품고 있는 자연 상태의 돌을 수집하여 다양한 모양의 꽃병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인간도 하나의 물(物)이다. 꽃병의 모양이 다르듯 피워내고자 하는 꽃의 종류도 다양할 것이다. 꽃병에 꽃힌 꽃을 바라보며 나(我)에게 축적 시킬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생명체를 피워낼 것인지에 대한 사색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로 작업에 임했다. 관습과 전통 속에 매몰된 채 타인의 지배에 놓여 있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와 대면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제작방법으로는 꽃병의 몸체는 자연석을 이용하여 석고로 원형을 제작하여 틀을 제작하였고 물대는 석고 제형으로 제작하였다. 몸체와 물대를 캐스팅한 후, 건조 시킨 다음 몸체에 물대를 접합시켰다. 특히 벽걸이형 꽃병의 경우 자연석의 전체 형태에서 한쪽 면만을 사용하기 위해 돌 원형의 반을 흙에 묻고 필름지로 감싼 후 석고를 부어 원형을 만든 다음 틀을 제작하였다. 몸체와 물대를 캐스팅으로 탈형 한 후에 몸체는 20분 정도 건조된 상태에서 평평한 석고판에 슬립을 붓고 3~4분 정도 굳힌 다음 꽃병의 몸체를 올려서 고정한 후에 밑판과 몸체의 접합 부위를 슬립을 사용하여 틈새를 매꿔 주고 밑판과 몸통이 완전히 붙어 건조된 상태에서 물대를 부착하여 완성하였다.

【시작품 5】 사색



백자, 슬립캐스팅, 환원소성, 155 x 165 (cm)

【시작품 6】 사월의 외출



백자, 슬립캐스팅, 환원소성, 150 x 250 (cm)

【시작품 7】 제비



백자, 색슬립, 슬립캐스팅, 환원소성, 950 x 260 (cm)

### 3) 답소-1

본 연구자가 돌과의 소통을 통해 느낀 이미지는 돌의 거친 표면과 둥근 형태에 있다. 수많은 계절을 지내면서 깎이고 다듬어져 둥글어진 모양은 세월에 순응한 흔적 즉, 돌의 형상에 내재 되어 있는 궤적(軌跡)이다.

시간과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또다시 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물인 돌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다. 한낱 덩어리에 불과한 모습에서 의연함을 느끼게 된다.

돌이 겪어온 풍상한설(風霜寒雪)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 여정과 결부시켜 표현하였다. 작품 안쪽의 거친 부분은 돌의 과거이고 바깥의 매끈한 표면은 미래이다. 돌의 과거와 미래를 연출하여 우리의 지향점을 상징화한 작품이다.

제작방법은 작업에 필요한 돌 원형의 단면을 얻기 위해 돌 원형의 반을 흙에 묻고 필름으로 감아 벽을 만든 다음 석고를 부어 원형을 만든 후 틀을 제작하였고, 굵이 있는 접시는 원형의 중앙에 굵의 위치를 정한 후, 굵의 틀을 흙으로 제작한 다음 석고 틀을 만들었고 각각을 슬립캐스팅을 하여 건조시킨 후 몸체와 굵을 붙여서 완성하였다. 기물의 테두리에는 백금을 발라 3차 소성을 하였다.

【시작품 8】 담소-1



백자, 환원소성, 85 x 135 (cm)

4) 답소-2, 답소-3, 답소-4

고난을 겪으며 둥글어지는 돌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과도 맞닿아 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였나. 이미 정해진 정답 같은 삶을 강요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난 돌이 되어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숨 가쁘게 살아가느라 피곤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겐 둥글어진 돌의 모습을 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거칠고 모난 모양으로 변해 버린 마음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둥근 형태로 완성해 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 속에 함께 하는 편안한 식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제작과정은 제형기로 석고 반구형과 Bowl 형태를 만든 후 돌로 두드려 찍어서 돌의 거친 표면을 연출하여 원형을 만든 후에 틀을 제작하여 슬립캐스팅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 굽은 형태의 접시는 흙으로 원형을 만든 다음 석고 원형을 만들고 틀을 제작하여 슬립캐스팅 기법으로 완성하였다.

작품 【답소-4】는 오랜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하며 손맛의 즐거움을 전해 주는 맛깔난 음식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누름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하게 되었다. 십 수 년을 향아리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 모서리가 삭아 떨어져 나간 돌의 모양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았다. 그래서 식기로 재탄생 시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없이 넉넉한 마음을 베푸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고 싶었다. 아마도 어머니는 그 그릇에 가을별 가득 안은 대추도 담고, 한 것 살이 오른 토실토실한 알밤도 담아내어 주실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인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을 조형적 언어로 표현하였다.

제작과정은 돌 위에 형성될 그릇의 몸체를 만들기 위해 필름지로 돌을 감

싼 뒤, 석고를 부어 물기가 있을 때 성형을 하고 석고와 돌이 결합 되는 부위는 본드를 발라 고정시킨다. 몸체를 뒤집어 굽의 위치를 정한 다음 흙담을 만들어 돌 원형에 직접 석고를 부어 굳히고, 적합한 모양의 굽 형태로 다듬은 다음 떨어지지 않도록 본드로 고정을 하고 석고 몰드를 제작하였다. 슬립에 철가루를 섞어서 돌의 질감을 극대화하였고, 소성 후에 다이아 사포로 연마를 하여 돌의 거친 표면과 부드러운 면의 대비를 도모하였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에 금채장식을 하였다.

【시작품 9】 담소-2



백자, 슬립캐스팅, 환원소성, 110 x 110 (cm)

【시작품 10】 담소-3



백자, 슬립캐스팅, 환원소성, 195 x 150 (cm)

【시작품 11】 담소-4



백자, 슬립캐스팅, 환원소성, 100 x 100 (cm)



### 【만추(晚秋)】

오곡백과(五穀白果) 풍성한 가을이 오면 황금빛으로 출렁이는 들녘처럼 우리의 몸과 맘도 즐거움으로 물든다.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에 식탁을 풍성하게 장만하여 가을 햇살처럼 맑은 웃음이 번지는 따듯한 자리를 만들어 가족의 맘도 살찌우고 싶은 마음에 구성한 식탁이다.



### 【 5월의 장미 】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이다. 일 년 중 가장 많은, 감사하는 사람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이어지는 달이기도하다. 사랑하는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날의 분위기를 더해 줄 꽃꽂이와 향초를 함께 연출하였다.



### 【초대(招待)】

특별한 날, 손님을 초대하여 예의를 갖추어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싶은 날의 상차림으로 커다란 메인 접시와 볼을 배치하여 상차림의 의미와 품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담소(談笑)】

일상을 함께 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필요한 특별한 날이 있다. 배려와 경청이 필요한 자리인 만큼 조출하고 깔끔한 상차림으로 연출하였다.

### Ⅲ. 결 론

본 논문 작품의 시작은 일본의 ‘도쿄 테이블웨어展’ 참관 후 인식의 전환이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테이블 웨어 저변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도예를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기획 의도가 본인의 조형 의지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어 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 산재한 ‘돌’이라는 주제를 본인의 경험에 의한 내적 심상을 바탕으로 형태를 분석하고 재해석하여 작품의 입체감과 질감의 표현에 중점을 두고 조형화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실용성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세미오브제(Semi object)<sup>6)</sup>로서의 테이블 웨어인 본인의 작업을 생활공간에서의 조형의 확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러나 “공예라는 조형언어는 미적 가치와 실용성이 일치될 때,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sup>7)</sup>는 과거의 논리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대는 개성과 창의성 그리고 문화와 여가가 중요시됨에 따라, 취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계급이 취향을 개인과 사회의 척도를 상징하기도 하며, ‘취향’이 계급을 대신하는 키워드다.”<sup>8)</sup>라고 말한다. 취향이나 계급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경제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총체적 국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문화적인 생산과 소비

---

6) semi는 영어로 ‘어느 정도의’, ‘~에 준(準)하는’의 뜻과 object의 합성어로 심미성과 실용성이 담긴 사물을 일컫는다.

7) 김영민, 『검은고양이... 공예에 대한 생각들』,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8, p.41

8)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새물결, 2005, p.195

가 일종의 사회적인 지표가 된다. 따라서 “생산의 형태도 개성과 창의성, 취향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의 삶과 관련한 상징을 만들고 그것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sup>9)</sup>는 글에서 본인의 작업이 현대미술의 사조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 기쁨과 함께 용기를 얻어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작품의 제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 째, 우리의 전통 속에서의 ‘돌’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었다.

둘 째, 실용성이 강조된 공예미를 심미적 기능에 부합한 새로운 조형의 의지로 접근할 수 있었다.

셋 째, 사용자가 개인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분위기의 식탁 연출을 도모하여 보다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넷 째, 일반적으로 석고 성형은 균일화된 작업을 유지하고 대량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사물을 본래의 형태대로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도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석고 성형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다섯 째, 형태미와 표면의 거친 질감의 표현에 중점을 두어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도모하고자 백자 위주의 작품이 많았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차후 다양한 장식 기법과 색채를 연구, 개발하여 보완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각종 문헌에 나타난 자연물인 돌의 가치와 의미가 담긴 상징물들이 어떻게 시각화되어 예술품으로 발전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 본인의 작업에 풍부한 이론적 근거와 포괄적 사고를 마련하는 계

---

9) 김영민, 『검은고양이... 공예에 대한 생각들』,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8, p.90,91

기가 되었다. 어느 전공자들이 쉽게 접근하는 작업들도 본인에게는 쉽지 않은 여러 경험들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작업에 매진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인이 만든 작품들 앞에서 소찬(素饌)이 성찬(盛饌)의 기회가 된다면 본인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강희안, 『양화소록, 이병훈역』. 서울: 을유문화사. 2000(원저 1476출판)
- 김동규, 『하이데거의 예술론』. 예술과 철학사이. 2009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 김영민, 『검은고양이... 공예에 대한 생각들』.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8
- 장준근, 『한국의 수석미』. 석오출판사. 1979
-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새물결. 2005

### <학술지>

- 박현희, [조선시대 괴석도에 나타난 돌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조형교육학회 조형교육 제 58집. 2016
- 전여옥, [조선시대 괴석의 특징과 산수화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국전통조형학회지 Vol. 22 No. 2. 2004
- 정유경, 홍종숙 [ 한국, 중국, 일본 식기의 변천과정에서 본 식문화의 문화사적 고찰],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외식경영전공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3(3). 2008

# ABSTRACT

## Research on Ceramic tableware with a stone

Hong Seung Yeon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A few years ago, I watched the annual Tokyo Tableware fair in Japan. The development of elements that make up the meaningful presentation on the table, such as the dish, cup, glass, linen, center piece, and cutlery was the object of envy.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an opinion on new tableware in consideration of practical use and aesthetic effects.

After I visited Japan, I went to a stream at the suburb of Seoul. There were a flat rock buried in the dirt of a mountain, and the stone which was crushed, bent, and washed in a circle shape along the valley.

I tried to create a tableware which has an emotional story. In order to create it, I found the subject of the work with an author's perspective in the colorful, natural form of stone, which seems to contain many stories as its various shapes.

Compared to imperfect and limitation of human being, stone is a symbolic existence which has a transcendental power that endured

through the years of silence despite the harsh winds. Because the invariability, immovability, rigidity, and permanency of the stone are the moral meaning of self-reflection and also a virtue that human being should pursue, I chose a stone as an object of the research.

The production of the work was shaped by interpreting the stone form with an abundant artistic elements as a personal emotion based on its relationship with humans. It was based on white porcelain work, and was able to copy using a natural stone to create various forms of sculpture, and then transform them. It is mainly made using Drain Casting of Slip Casting and Solid Casting that makes mass production easier. In case of a kettle, the accessories(lid, tube, handle) were molded into a spinning wheel to form various designs.

Research was motivated by observing the form of stone, a natural object that exists in our daily life. Also, the intrinsic value of the object was realized anew by the symbolism of water. To create a tableware with emotional stories, breaking away from traditional thinking, which has only focused on functional aspects, it is designed to be table-ware with practical and decorative features that can be combined by user preference to create new configurations.